FDD-Korea

승희 그림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륭성 발전을 위하여 이 한 표를…

8월호

1957년 (81)

활살

—쏘련 인민에게 우리들의 감사를 전하여 주세요.

조 명식 그림

춤이라도 추고 싶어

김 광 현

갑—아! 이거 참 오래간만일세 어서 손목을 한번 쥐어 보세.

을—(갑과 악수하며) 그래 어딜 그렇게 뛰여 가던 길인가?

갑—나 말인가 나는 지금 춤을 추러 가던 참이지.

을—뭐? 춤……

갑—옹헤야 너도 나도 옹헤야……

을—아니! 자넨 지금이 어느 땐줄 아나?

갑—지금은 저녁 때지 뭐야?

을—허어 이건 단단한 비판'감인걸… 최고 인민 회의 선거를 앞둔 이 바쁜 때에 춤만 추러 다녀……

갑—그렇게 기쁜 때니까 춤을 춰야지.

을—오오라 자네 써클원인가 보군.

갑—아니야 내가 추천한 사람이 바로 우리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됐단 말야.

을—그래 그 분이 누군가?

갑—자네도 알만한 사람이지. 나라'일이 라면 언제나 발 벗고 나서고……

을—그런 사람이 어디 한 두분 뿐인가……

갑—그야 많구 많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전전보다 5천 프로로 생산이 확장된 부문에서…

을—뭐 5천 프로? 자네 좀 돌았는가 보군.

갑—돌다니?

을—자네 머리가 말이야.

갑—내 정신에 이상이 생겼단 말인가? 원 천만에, 지금이라도 3개년 계획에 대한 문헌을 살펴 보게, 우리 벽돌 부문에서는 전쟁전 보다 5십 배나 증산했다구 뚜렷하게 적혔을테니.

을—그렇지 5십 배지. 난 우리 공장의 모범 선동원이니까 그런건 다 따루 외이고 있어.

갑—이사람아 5십 배가 바로 5천 프로가 아니고 뭔가?

을—뭐 뭐?……으음! 그래

갑—선동원이 그런 걸 몰랐다는 건 비판'감이야.

을—허어 그거 참!

갑—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증산으로 우리 나라에 고층 건물을 웃뚝 웃뚝 일어서게 한 모범 일'군을 우리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했단 말야.

을—허어 그거 참 유감스럽군

갑—아니 뭐가 어째서 유감스러워?

을—그렇게 훌륭한 분을 위해서 내가 투표할 수 없으니 말이야.

갑—아니 누가 그걸 말린다던가?

을—우리는 누구나 한표밖에 투표할 권리가 없는데 그건 우리 선거구의 후보자이며 내가 존경하는 작가 송 영 선생을 위해서 투표해야겠으니 말이야.

갑—허어 그러고 보니 나는 그 선생을 위해서 투표할 수 없는 게 유감이군.

을—사실 말아지 문덕 선거구를 비롯해서 이 선거구 저 선거구로 돌아 다니며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마다에 투표할 수 없어서 애타는 사람이 우리 뿐만은 아닐 거야.

갑—그래서 말이야 나는 문덕 선거구에 있는 내 동생에게 내 정성까지 함께 담아서 투표하라고 편지 했네

을—그래 그 자네 동생의 주소가 어덴가?

갑—아니 그건 왜 갑자기 물어?

을—나도 자네처럼 편지 해야겠어 그리고 나는 자네의 정성을 내 선거권에 한데 담아서 우리 선거구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갑—오오라 그럼 그 애국적이고 훌륭한 후보자들에게 모두다 투표하는 것으로 되겠군 그래

을—그렇지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알아 주시며 그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은 우리가 희망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준단 말야.

갑—그렇지만 우리 세상에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어.

을—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갑—아무리 애를 써두 백 프로 밖에 안 된다니……

을—아니 무슨 일인데 그렇게 힘들단 말인가?

갑—우리의 그 훌륭한 후보자에 대한 찬성 투표는 백 프로가 최고니까 하는 말일세!

을—하하……이사람아! 그건 백프로가 최고 퍼센테지 라네!

갑—그러니까 우리는 참가를 백 프로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겠군.

을—암 그렇구 말구 그리구 우리가 추천한 후보자에게 백 프로로 찬성 투표 해야지.

마술에 걸린 김사장

신 흥 순

《자 이렇게 증거가 뚜렷한데 아니라니 말이 되나?》

서장은 아래'입술을 삐죽이 내 밀고 양조 회사 김 사장을 쳐다 본다.

《아니 아편 밀수입이 라니요》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난 인천 바닥에서 십여년 동안 양조 회사는 해 먹었을 망정 밀수입이라는 건 전혀 아지두 못헙니다요》

《공범자가 서울서 잡혔는데두 아냐? 어러말 말구 어서 밀수입해 드린 아편'덩어리나 내 놓우!》

《자 이거? 버선목이라 뒤집어 보일 순 없구…아니 서장 어른! 나란 사람을 빤히 아시면서두 그러십니까?》

《흥! 민주당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그 따우 짓을 했다는게 명백히 들어 났는데 변명은 무슨 변명이요? 흥! 김 사장! 차라리 용서를 해 달라면 몰라두 안했다는 거야 말이 되나?》

《아니 정말입니다. 서울서 잡혔다는 데 어떤 미친놈인진 몰라두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잡니다. 인제 삼자 대면을 해 보신대두 알 일이 아닙니까?》

김 사장은 버쩍 버쩍 타 오르는 입술을 연방 혀 끝으로 적신다.

《글쎄 서울서 통보가 왔는데야 어찌겠소? 허기야 내가 조서를 꾸미기에 달리긴 했지만…》

《아 그럼입쇼, 죄가 있구 없구간에 죄상의 경중 후박이야 서장님 손에 달렸습죠》

《사실 아는 처지니만치 한가지 조건부로 용서를 해 드리지.》

서장은 책상설합에서 용지 한장을 꺼내 김 사장 앞에 밀어 놓는다.

《아하 마술이로구나!》

김 사장은 걸려들지 않기 위해 정신을 버쩍 차렸다.

《이건 자유당 입당 청원서가 아닙니까?》

《게다 도장을 찍으시지! 그러면 만사가 걱정없이 다 해결 되도록 만들어 드릴테니까》

《허지만 저는 이미 민주당이니…》

《그까짓거야 《탈당 성명서》 한장이면 알아 볼게 아뇨! 아무 권력두 없는 무능한 단체에 왜 이름을 걸구 있었단 말요! 원 참! 이쪽으루 넘어 온다면 명년 국회의원 출마두 힘수 있을게구…》

《저같은게 뭘요. 서장님 이건 좀 생각해 가지고 답변하겠습니다.》

《음 절대로 강요하는건 아뇨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 그럼 이 조서에다 나 서명날인을 하시지》

그 조서는 《아편 밀수입》을 안했다는 본인의 진술서였다. 김 사장은 《아마 무사히 해 주려나부다》 생각하고 쾌히 도장을 찍었다.

《에다 하나 더 찍으쇼!》

《그건 백지가 아닙니까?》

《한통은 서울로 보내고 이건 부본으로 여기 보관해얄게 아뇨?》

김 사장은 무엇보다 서장의 마술에 걸려들지 않는 것을 다행히 여기면서 함정에서나 살아 나오듯이 힝하니 돌아 왔다.

이튿날 김 사장은 더욱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신문지상에는 난데 없는 자기의 《탈당 성명서》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가?

거기에는 《협잡만 일삼는 민주당은 정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탈당하고 자유당에 입당하겠다》는 결의가 표명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어쩐 영문을 몰라 신문사로 달려 가보니 거기에는 확실히 자기 도장이 찍힌 《탈당 성명서》가 있었다. 알고보니 그것은 다름아닌 경찰서장이 의뢰했다는 것으로 어제 백지에 도장을 찍었던 용지임에 틀림 없었다.

그는 아뜩한 정신을 가다듬어 경찰서로 가려고 신문사를 척 나서는 데 순경 하나이 서장의 편지를 전해 준다. 풀어 보니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적혀 있다.

《아편 밀수입 사건이 확대되어 당신이 련루자로 판명되였으니 당분간 몸을 피신하는 것이 좋겠소》

《개자식들!》그제서야 그는 자기가 서장놈의 마술에 단단히 걸려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명년 오월에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리 승만 계렬에서는 야당들을 탄압하는 한편 야당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갖인 음모와 흉책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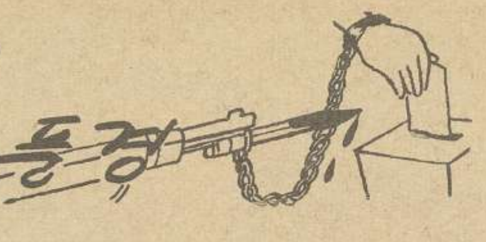
신망 있는 일'군을 추천하니

절대 다수 인민의 지지를 받았고

우리의 건설은 보장된다

리 영춘 그림

남조선 선거 풍경



박 노 을

아편 장사는 감옥으로 간다

우선 립후보하여 나서는 놈들이 당선 후엔 노락질로 더 한몫 보자는 놈들이니 검정개 건 얼룩개 건 개는 개무리에 틀림없다. 개 싸움은 서로 립후보를 못 하게 하는 즉 경쟁 대상자가 없도록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뭐 야당의 그놈이 립후보해서 나섰다구? 그래 경찰은 뒷틀을 하고 있어? 그래 아직두 집안에서 뻔뻔히 살게 해 뒀단 말이야?》

경찰이 자유당 간부에게로 불려 온다. 수군덕대는 순간이 지나 허랑한 웃음이 서로 어린다.

《알겠지?》

《네, 그렇게 하구말구요 허허허》

경찰이 야당파 립후보자의 문전에 나타나긴 새벽녘, 경찰은 슬그머니 야당파 립후보자의 대문'간에서 성명 석자가 뚜렷이 백인 문패를 떼서 도랑에 쳐박는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리며 고함질이다.

《어봐, 청소는 왜 안했어? 이게 뭐냐 말이어, 응? 문패두 없구…?》

《문패는 왜 없겠소? 청소두 이만하면 되지요 아침부터 무슨 행패요?》

《응? 경찰에 대항한다? 그래 눈을 뜨고 봐! 문패가 있나? 문패두 안붙이고 무슨 피란을 꿍꾸이 꾸미는 거야, 이래가지구두 백성이라구 할가, 가자!》

《아니 어데루…?》

어제 바루 선거구의 립후보 수속을 끝마친 이 가련한 립후보자는 경찰서 류치장 신세가 된다.

《소지품은 이리 내놔》

그는 담배'갑이며 상아 물뿌리, 손수건 등… 소지품을 풀어 놓았다.

생활 질서 유지 위반 경찰에게 반항… 등 무시무시한 죄를 들씌우려 했으나 헛 일일 수 밖에---그는 풀려 나온다.

아 그러나 안심하긴 아직 이르다.

《받어! 모자며 네 허리띠다. 응 담배'갑 생긴게 아주 수상한데 한번 조사해 보자》

경찰은 담배'갑을 뒤진다. 밥알만한 아편덩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경찰 저이놈들이 후에 트리 박었으니……

가련한 립후보자씨는 아연히 놀래나 벌써 따귀가 와 붙는다.

《이놈아, 네가 장사를 째 크게 벌려놨다 했더니 이렇게 번 돈이였구나, 흥 아편 장사!》 그는 또다시 구류의 신세로 되어 립후보 선거는 받기커녕 선거 날까지도 류치장 신세를 졌다.

절약 선거

이것은 소위 대통령 선거 때에 있은 일이다. 《민의 발동》까지 연극을 조작하여 나선 리 승만은 재선을 보장 받기 위해 그전에는 없었던 국군에게까지 선거권을 부여했다.

리 승만의 앞잡이들인 악질 장교들만은 의심할바 못되나 선거표를 주고도 믿지 못할 것은 사병들의 심사었다. 자유당 본부로 불리워 갔던 국방부 장관은 관하 군부대들에게 비밀 지령을 내렸으니 왈 시간을 절약할 것!

사단장은 련대장, 련대장은 대대장, 이렇게 중대 소대로 쑤근 쑤근 지령을 내려 선거 당일——사병들은 오늘 하루를 그래도 선거 바람에 하루의 훈련이 없을 것이라 기뻐했다.

그러나 그것도 허사였다.

악질이라고 이름난 소대장은 사병들을 몰아 놓고 고함쳤다.

《어봐, 리 승만 대통령을 선거할 것은 한 밤이겠지?》

사병들은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소대장은 말을 계속했다.

《시간도 없는데 여러시, 갈 것 없어, 시간을 절약해 내가 대표로 혼자 가서 너이들 몫까지 하고 올테다》

소대장은 소대 전원의 머리'수대루 선거표를 받아 리 승만 통속에 넣었다.

선거야 모르라·마는

개 싸움판에 인민들이 동원 안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니 놈들은 경찰을 또 동원할 밖에——선거 당일 새벽은 미친개나 때려 잡는듯 스산하기 짝이 없다. 인가의 대문은 굳이 닫쳤는데 순경, 테로들은 문을 뚜들긴다. 담장을 넘는다.

《나와! 이자식이 왜 아직 일어두 안났어》

《아파유》 집 주인이 선 하품을 한다.

《아파? 이자식이 공연한 트집을 잡느라고… 썩 일어나 가지 못할까?》

순경들의 소동 바람에 겁에 질린 안해가 바르르 떨며 서 있다. 순경은 곤봉을 휘드르며 집 주인을 자리에서 일어나라 거더찬다. 주인은 할 수 없이 일어나며 투덜거린다.

《그래 무엇땜에 이러시유?》

《이놈 그래 선거두 몰라?》

《선거라니요?》

《선거 선거 말이야?》

《네! 선거 말입니까? 당신 뒤에 우리 녀편네가 서 있군요 또………》

《이자식아 그런 선거 안야 날 따라 와서 하라는데루 하기나 해………》

이! 집 주인은 무식을 가장했건만 그는, 아니 온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총칼로 끌리워 선거장으로 간다.

판의한 두 선거

명절 분위기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선거 위원

인민이 추천한 후보

삼엄한 분위기

미제에 조종되는 선거 감시원

돈을 바치고야 후보자로 등록

자유스러운 선거 선전

선거자들의 권리는 민주주의로 보장

결과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

반대파는 체포 구금

위협, 공갈, 매수, 사기로 투표 진행

결과는 미제의 끄나불

박 승히 그림

최고 인민 회의 선거 승리는 미제에 주는 또 하나의 타격

—우리의 기대는 또 어긋나는구나 오! 하나님!

최 영근 그림

유 항 림

봉익이 김선달이

봉익이 김선달이 한번은 서울로 올라 갔었는데, 하루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그만 이야기가 길어져서 밤 늦게야 숙소로 돌아 오던 길에 순라들과 맞다들게 되였다. 벌써 통행 금지 시간이 된지도 오랬으니 끌려가기만 하면 볼기를 맞게 마련이다.

그는 문득 무엇을 생각했는지 어두운 길'바닥만 들여다 보고 돌아 가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기 시작했다.

순라들이 달려들어 좌우에서 그의 두 팔을 틀어 잡았지만 그는 돌아 보지도 않고 땅'바닥만 들여다 보며 중얼거렸다.

《가만들 계슈. 이거 참 야단났소. 큰 재물을 떨어뜨려서 그걸 찾고 있는 길인데…》

《뭐? 큰 재물이라구?》

《예, 일생 동안 먹을 재물을 떨어뜨렸는데, 찾으면 우리 논아 먹습시다.》

일생 동안 먹을만한 재물을 논아 먹자는 말에 순라들은 구미가 잔뜩 동했다.

《일생 동안 먹을 재물이라니, 대체 어떻게 생긴거요.》

《쉬——떠들지들 마시오.》

그리하여 봉익이 김선달과 순라들이 함께 어울려 골목 안팎을 샅샅이 두지며 돌아가는 사이에 어느새 날이 밝고 인경이 울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야 김선달은 담배'대를 쳐들면서 고함을 쳤다.

《야, 여기 있군!》

순라들이 모여들어 물었다.

《그게 뭐요?》

《담배'대지요. 잃지만 않으면 일생 동안 먹을 수 있지요. 원하신다면 우리 서로 논아 씁니다.》

네모난 뱀

한 사내가 헐러벌떡거리며 산에서 뛰어 내려왔다.

《무슨 일인가, 왜 그렇게 덤비나?》

《그런게 아니라 산에 올라 갔다가 하마트면 죽을뻔 했네. 한 백 발두 넘는 구렝이를 만났어. 허리 통두 너덧발 되겠데…》

《예끼 이사람 거짓말 말게. 백 발이나 되는 구렝이가 어디 있단 말인가?》

《안야 굉장히 커, 백 발은 모르지만 오십 발은 되겠데.》

《그만두게, 오십 발 되는 구렝이가 어디 있겠나!》

《거참! 실지루 재 보지는 못했으니까 한 이삼십 발밖에 안되는 걸 내가 그렇게 봤는지두 모르겠네.》

《듣기 싫네. 스므 발이나 되는 구렝이라는 걸 누가 믿겠나?》

《정말이지 열 발은 넉넉하겠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안야 정말 일곱 발은 넘을 거야. 그렇지두 않다면야 내가 왜 놀랐겠나?》

《그런 소리 말라구 믿지 않을테니…》

《하 그 사람 패두 깎는군! 정말이지 다섯 발은 되겠데. 암. 다섯 발 되구말구…》

《이 사람아, 이날 이때까지 다섯 발되는 구렝이를 본 일두 없구, 그런걸 봤다는 사람을 만나본 일조차 없네》

그러자 그 사내는 정색하면서 단호히 말했다.

《인젠 정 한 발두 더는 깎지 못하겠네. 내가 아까 뭐라고 했나? 구렝이의 허리 통이 네 발 된다고 했는데 이제 한 발이라도 더 깎으면 네모난 구렝이가 되지 않겠나? 예끼 이사람아 누굴 거짓말쟁인줄 아는가베》

듣고만 계십쇼

산'골 사는 사람에게 산'골서는 어떤 반찬을 흔히 먹는가고 물은 사람이 있었다.

〈우리 산'골에서야 뭐 다른 거야 별로 먹을게 있습니까? 그저 일년 사철 꿩젓이나 먹구 살지요.〉

〈꿩젓이라니요?〉

〈꿩고기를 저린 것 말이지요.〉

〈무슨 꿩이 그렇게 많아서 저려 두구 사철을 대서 먹는단 말요.〉

〈산'골에야 흔한 게 꿩이니까요.〉

〈많기만 하면 뭘합니까, 잡아야지?〉

〈꿩이나 잡는 거야 간단하죠.〉

〈어떻게요?〉

〈겨울에 길이 넘도록 눈이 싸이면 꿩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인가 근처로 내려오지요. 그런 때는 소를 마당에 내다 매고 소 등에다 물을 끼얹고는 콩을 한줌 뿌려 두지요. 그러면 물이 얼면서 콩알은 얼음에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잔뜩 굶은 꿩들이 모여 들어 그 콩알을 쪼아 먹으려 하지만 얼어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아서 자꾸만 쪼게 된답니다. 그러면 등이 가려우니까 소가 꼬리를 휘휘 내두르게 되는데, 그 소꼬리에 방망이나 하나 매달아 두면 소가 꼬리를 휘, 내두를 때마다 꿩들이 맞아서 한두 마리 혹은 두세 마리씩 우수수 떨어지군 하니까요.〉

이런 말을 지꺼리고 있는 것을 듣고 옆에 앉아 있던 그의 아버지가 하두 어이가 없어서 꾸짖었다.

〈예 네가 환장을 했느냐?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자 아들은 시치미를 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가만이 앉아서 듣고나 계십쇼. 아버지는 낳기두 전의 일이 니까요〉

내가 어떻게 알고!

〈아주머니, 금년에 년세가 몇이시오?〉

〈난 건넌 마을 귀덕이 어머니와 동갑이지.〉

〈그럼 귀덕이 어머닌 몇에 나셨나요?〉

〈남의 나이를 내가 어떻게 알고?!〉

유 항 림

수 백만 절량 농가들이 초근 목피로도 연명해 나가기가 곤난하게 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고, 남조선 인민들의 원성이 더욱 높아지자, 하루는 미국 대사가 경무대로 리 승만을 찾아갔다. 서로 인사가 끝나고 둘이 자리에 앉자 미국 대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대통령 각하, 절량 농가들 때문에 좋지 않은 여론들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여론들이 있습니까?》

《네, 매우 좋지 않은 여론들이 있습니다. 해방후 십여년 동안 풍수해 대책이 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아서 작년 같은 흉작을 보게 됐다면서 게다가 토지 소득세니 토지 상환곡이니, 하곡 매상이니 추곡, 매상이니 하고 낟알을 몽땅 긁어 갔으니 어떻게 굶어 죽지 않겠느냐고 아우성이 대단하답니다. 기정 방침대로 하긴 합니다마는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은군요. 미국 정부에서도 내 고충을 알아 주셔야 할 겁니다.》

《그 대책은 있습니까?》

《네, 그게 참 곤난합니다. 대책이라면 하나 밖에 없는데 그 대책이라는 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좌우간 그 대책이라는 걸 들어봅시다.》

《백성들은 말하기를 군사비를 얼마간 축감하고서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만이라도 원호를 해야 한다고 반정부 기세가…》

《대통령 각하——각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요. 소금이 그 짠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에 쓰리오. 길에 버려 뭇 사람의 발에 밟히게 되리라 하는 구절을 말이요. 군비 확장이 없다면, 그리고 전쟁 분위기가 필요치 않다면 우리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짠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마찬가지로 볼 것이요. ——군사비를 축감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네, 네, 그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대책이란 것은 우리 정부의 의견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일 뿐입니다.》

《알만 하오. 그러면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정부로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요. 우리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절량민들의 처지에 대한 대책이 아니요. 한국 정부와 각하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사회 여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대책이 우리의 관심사란 말이요.》

《네, 알겠습니다. 불온한 여론들을 막기 위해 우선 절량 농가의 수를 주려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불평을 말하는 자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각하, 북조선에서 원호미 십만석을 보내 주겠다는 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여론이 더욱 우리에게 리롭지 못합니다. 적극적인 대책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북조선에서 백미 십만석을 주겠다고 하는 제의를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백방의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대책만으로는 매우 부족하오.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는 리 승만의 귀에다 대고 미국 대사는 무언가를 한참 동안 쏘군거렸다. 리 승만은 눈을 크게 뜨더니 자못 의심 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군사비에서 떼내지 않고서야,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대통령 각하, 놀랄 필요는 없소. 자금이 나올 데가 없어도 좋습니다.》

《어떻게요?》

그리하여 둘이는 다시금 얼마 동안 더 쑥덕거렸다.

며칠 후에 소위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에서는 《난민 구호 대책》으로 2·4분기 안에 11억 5천만환의 《구호 자금》을 방출한다고 결정하고, 세상에 발표했다.

그와 동시에 대대적인 선전이 시작되였다. 마치도 절량민들을 기아에서 구출하기나 할 듯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공화국 정부가 남조선 절량민들을 위하여 보내기로 결정한 백미 십만석이 하루 바삐 자기들에게 전달될 것을 절실히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의 목소리를 지워버리기 위해서도 11억 5천만환의 《구호 자금》방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 떠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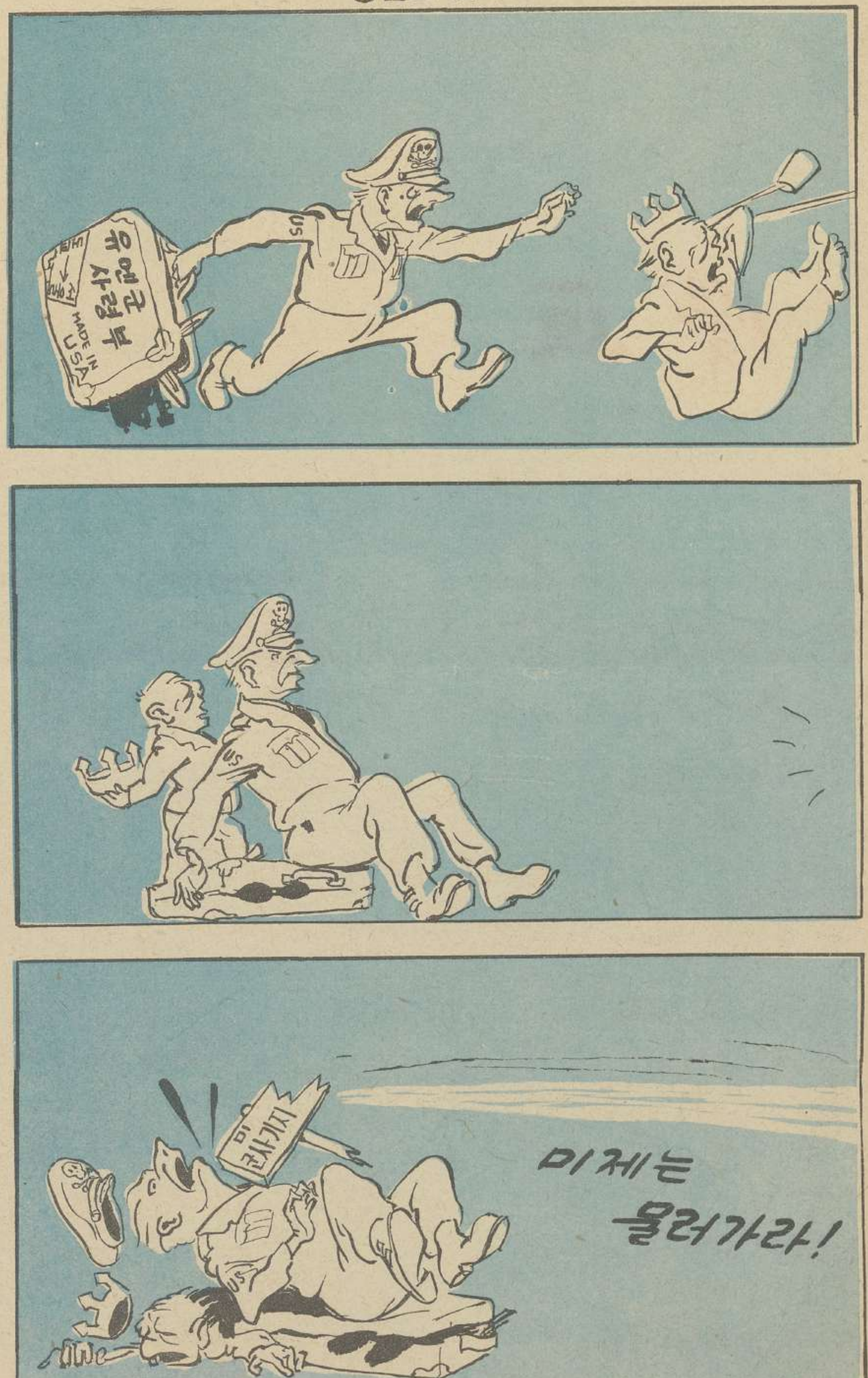
그러나 절량민들의 수는 더욱 더 늘어가고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지만 《구호 자금》은 한 잎도 방출되지 않았다.

7월에 들어 서자 리 승만 역도들은 인제는 2·4분기도 다 지나갔고 밀보리 갈도 됐으니 《구호 자금》을 방출하는 것을 무의미해 졌다고 성명하는 것으로 《난민 구호 대책》을 총결짓고 말았다.

이 성명이 발표된지 며칠 후에 경무대에서 화려한 연회가 있었는데 어느 조용한 틈에 리 승만은 이'발이라도 뽑은 사람같이 얼굴을 찡그리며 미국 대사에게 《난민 구호》를 떠드노라고 막대한 선전비를 썼다고 되까렸다. 그러자 대사는 그 선전비의 금액을 따지더니 한숨을 내 쉬고 나서 중얼거렸다.

《오! 막대한 희생이요! 그 자금이면 한개 중대는 더 길러낼 수 있었을 것을!》

당연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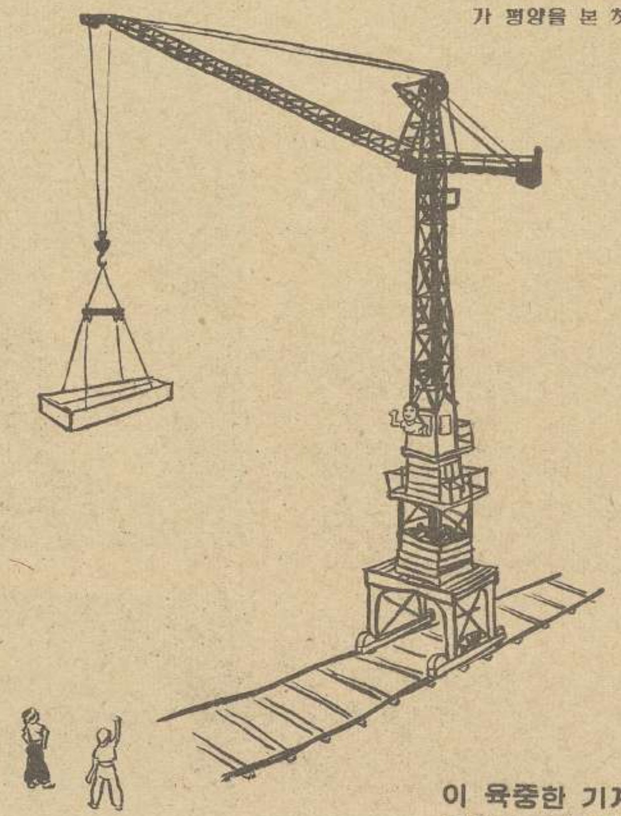
홍 종호 그림

우리의 귀중한 손님

중국의 저명한 만화가이며 중국 "만화" 잡지사의 부주필인 강 유생 동지가 래조하였다. 그는 40여명의 우수한 중국의 만화가들의 작품 75점으로 된 중국의 만화 전람회를 가지고 왔다. 이 련계는 우리 만화 부문에서 처음으로 되는 것이며 우리 조선 미술 분야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강 유생 동지의 래방은 조중, 량국 만화가들의 친선 단결을 더욱 굳게 하였을뿐 아니라 우리 두 나라의 문화 교류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우리의 공동의 적과의 투쟁에서 두 나라의 만화가들의 힘을 합치는데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강 유생 동지는 말하였다.

이 작품은 중국 만화가 강 유생 동지가 평양을 본 첫 스날이다



이 육중한 기계를 조선의 어린 녀성이 자유로히 운전한다

漫画

중국에도 우리 "활살"과 같은 풍자 잡지가 발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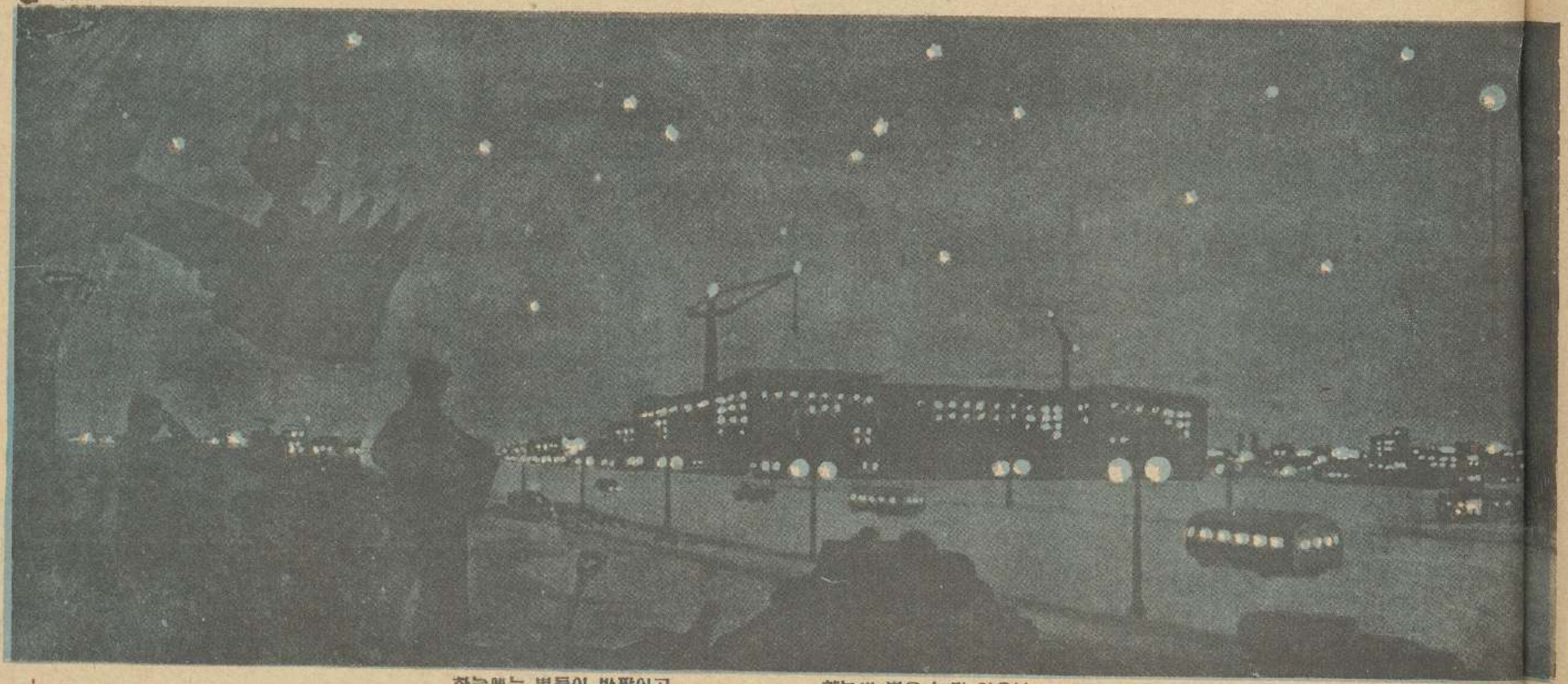
이 잡지는 1950년에 월간으로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이 잡지는, 중국 대륙에서 일어난 세기적인 변화들과 국제 정치 문제들을 만화로 형상화하며 미제를 괴수로 한, 전쟁 방화자들의 음모 책동들과 놈들의 내부 모순들을 예리하게 풍자 비판하여 중국 대중을 정치적으로 크게 교양 주고 있다.

우리는 이 잡지와 정상적인 련계를 가지여 왔다. 그들의 우수한 작품을 우리 잡지에 전재하였으며 중국 "만화" 사에서도 우리 조선의 만화 또는 풍자문을 중국 인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만화" 잡지 1956. 70호에서 전재
강 유생 그림

평양의 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거리에는 등'불이 유난히 빛나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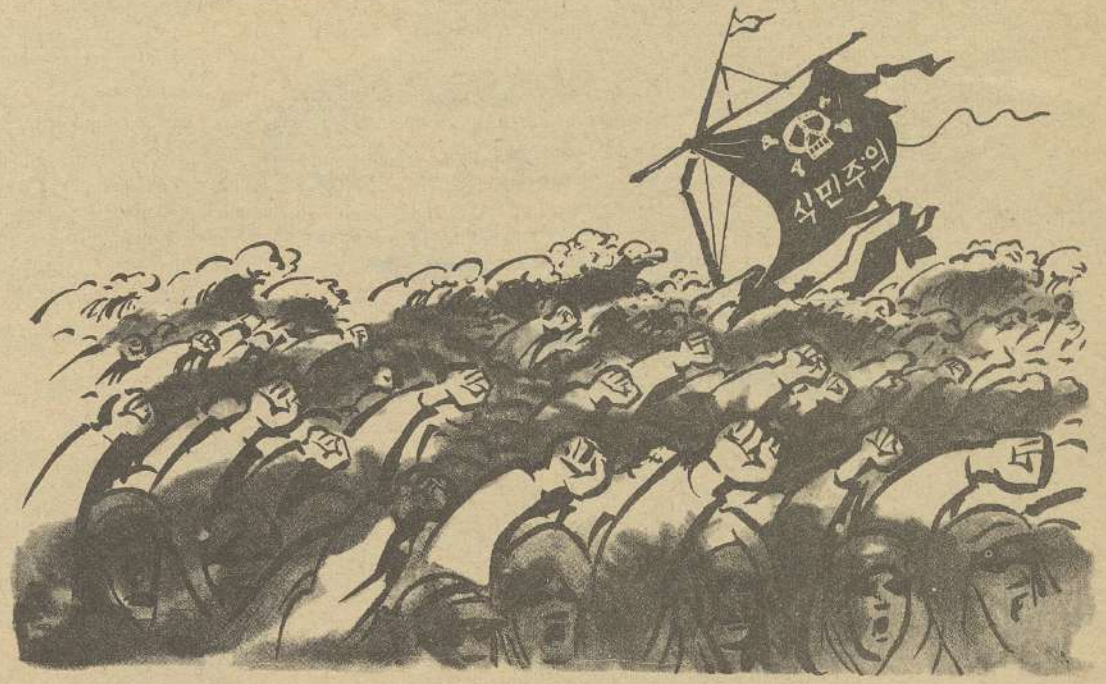
하늘의 별은 늘지 않으나
거리의 등'불은 많아만진다

화" 잡지 1955. 56호에서 전재
군무 그림

장 개석—나를 위하여
결사적으로 폭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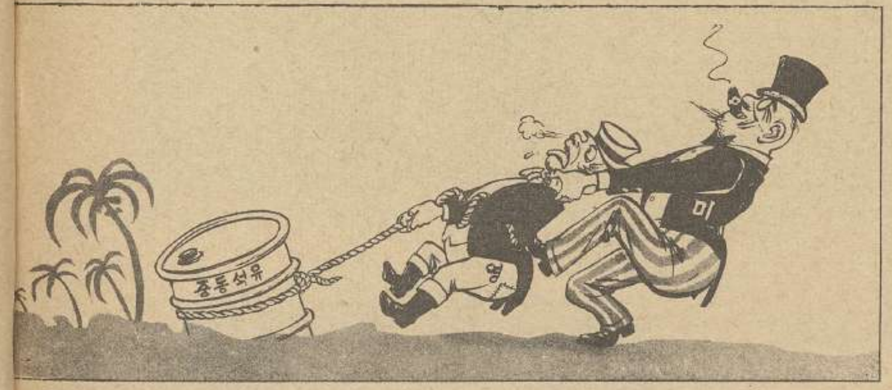
수에즈 운하는 배를 전복

"만화" 잡지 1956. 71호에서 전재
미 곡 그림



무 뽑기

"만화" 잡지 1956. 64호에서 전재
강 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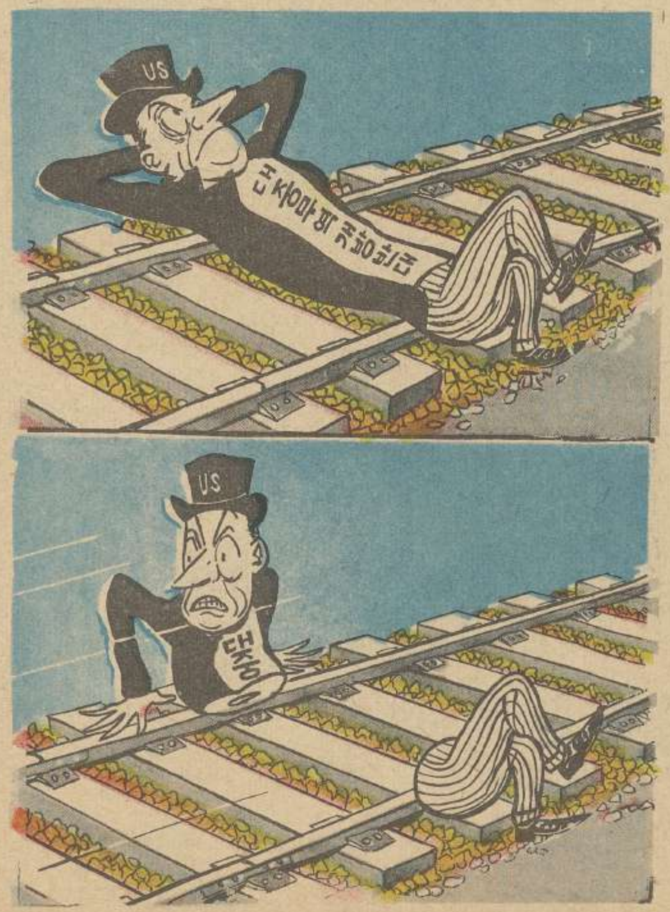


부사산 아래

"만화" 잡지 1957. 87호에서 전재
장 문원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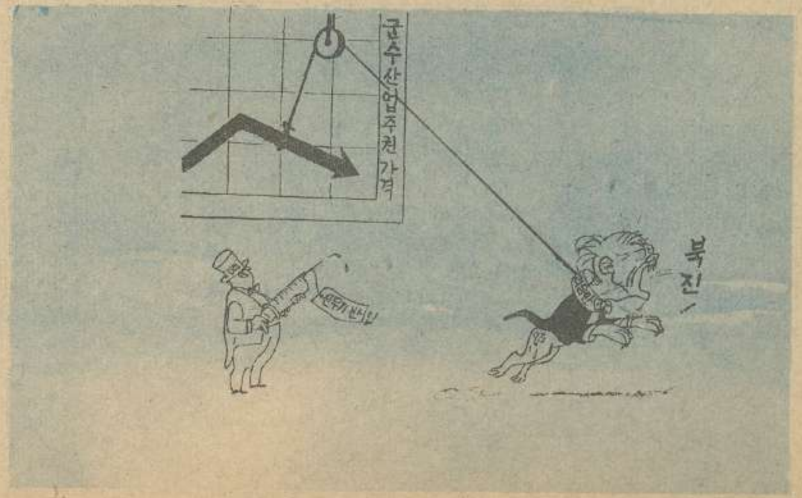
용사의 봉변

"만화" 잡지 1957. 93호에서 전재
영 도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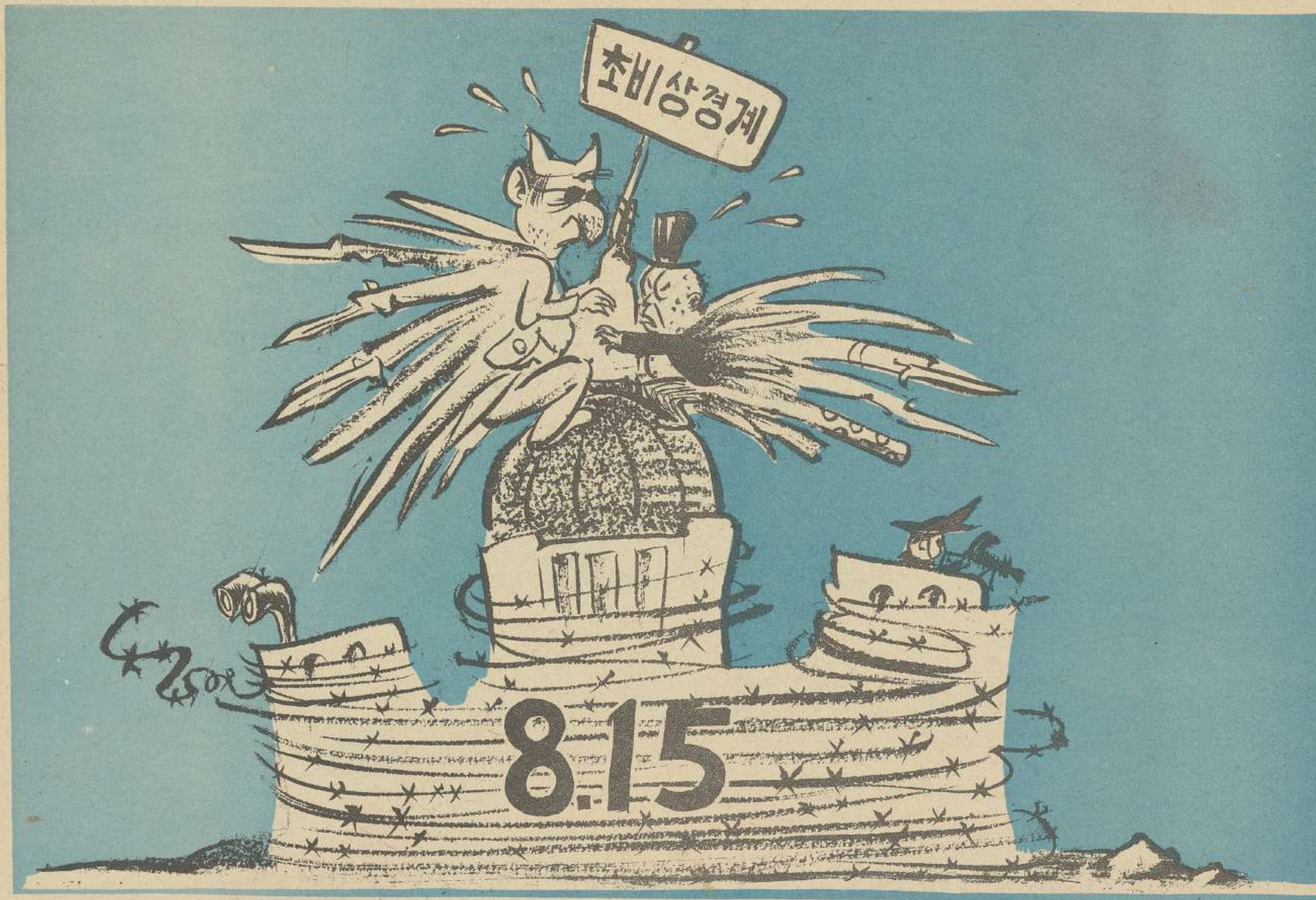


흥분제

"만화" 잡지 1957. 93호에서 전재
방 성 그림



비상한 고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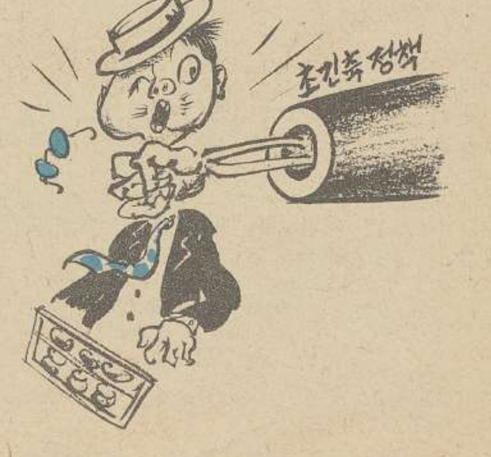
로동자—더는 참을수 없다!

전재민—오직 기아와 질병만이 보장되여 있답니다

농민—피땀흘려 12년 땅'덩어리는 개나리 보'짐으로 변하고 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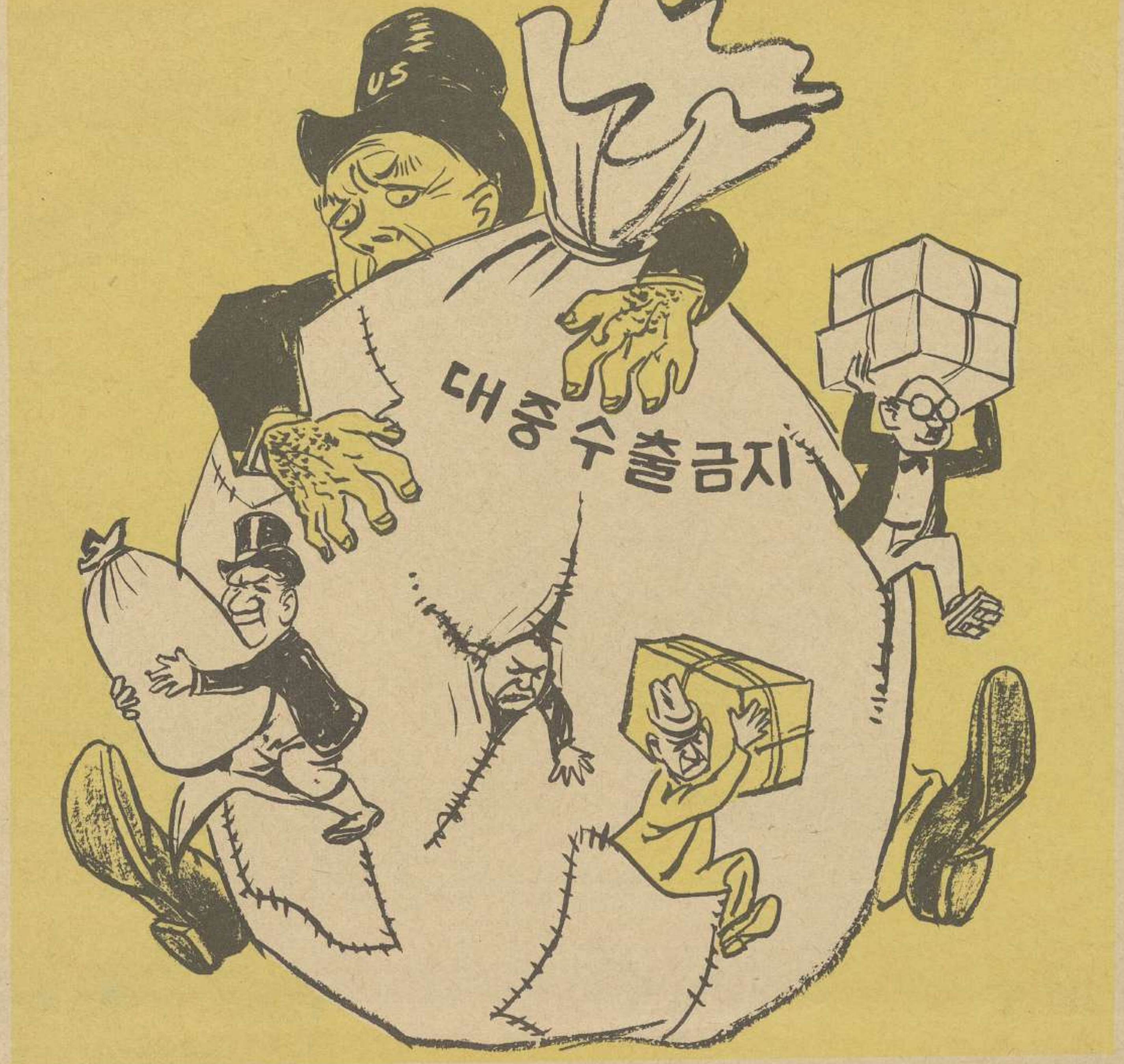
학생—학비를 마련하기 보다도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섭니다

공무원—오늘도 목아지는 별려 없을가 ?



중소 상공업자는 이렇게 말도 못 할 지경

백 인균 그림



—것잡을 수 없구나…

영국, 서부독일, 일본등 많은 나라들은 미제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무역할 것을 결정하였다

박 승히 그림

지리학적 소식

미국에서는 태평양을 흔히 《미국의 호수》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바이다.

최근에 콜롬비야 종합 대학 부속 근동 문제 연구소의 지도자들 중의 한사람인 쩨크 씨는 또 하나의 지리학적 새 사실을 생각해 냈다. 그는 지중해를 《나또의 바다》로써 개명할 것을 제의했다.

만일 앞으로 미국 전략가들이 라인을 《제2의 미시시삐》로, 그리고 알쁘쓰를 《미국의 산맥》으로 개칭하더라도 우리는 새삼스럽게 놀라진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리학적 작난 가운데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 즉 세계 제패를 갈망하는 자들의 길다란 귀가 대번에 보인다.

△ △ △

화란 아므스테르담에서는 봄의 양기 때문에 현혹증이 생긴 진기한 사건이 주목을 끌만하다. 지방 신문 《메뜨로뽈리》지 편집원들이 현혹증의 희생이 되였다. 그들은 지리학에서 혼돈을 일으켜서 방향, 위치를 분간할 판단력을 잃어버렸다. 그리하여 《아프리카는 구라파의 것이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구라파에 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떠버렸다.

그런데 같은 병환을 앓고 있는 대양 건너의 일부 정객들이 아프리카는 반드시 미국의 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자들 중에서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리학적 혼란의 병집을 치료하는 방법도 발견되였는 바 이는 아프리카의 인민들이 온갖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자기들의 독립 투쟁으로써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것이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아프리카의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끄로꼬질 12호에서

강력한 수단

미국의 오하이오 주 콜롬브쓰 시에 있는 사원의 승려인 신성한 로베르트 훼이는 최근에 《사랑과 하느님의 벌》이라는 표제 밑에 설교를 하였다.

그는 사회주의 사상이 광범한 인민 대중을 아주 전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간단하고도 적극적인 수단을 찾아내야겠다고 승려는 결심했다. 그는 자기 신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전쟁은 사회적 불평등을 소탕한다》라고——

만일 모든 사람이 수소 폭탄 앞에서는 동등하다면 무엇때문에 사회의 부정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라는 건가!

승려는 자기의 설교를 바로 이렇게 끝마치였다:

《전쟁은 모든 위협이 있기는 하지만 성서가 신앙으로 달성하려고 하던 것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다. 전쟁은 가장 완고한 사람까지도 그리스찬으로 개변시킨다》

이는 종교 재판에서 사람을 불살러 죽이던 그런 보잘것 없는 우등'불로서가 아니라 수소 폭발과 원자 로케트의 힘으로 세계를 불사름으로써 승려 훼이의 선배이며 주교였던 종교 재판관들이 언제인가 말한바와 같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도달하려는 것이다.

끄로꼬질 18호에서

(한 동신 번역)

빼랍 속에서야 예비가 얼마나 나올까?

홍 종호 그림

탐조등

암만해도 모를 일

나는 황해북도 곡산군 평암리 오리포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입니다.

내가 어떻게 조합을 지도하느냐 말이 지요? 말하자면 괜찮게 지도하는 셈이지요. 그것은 비록 모범 관리 위원장이란 칭호는 못 받았지만 락후한 관리 위원장이란 칭호는 정령으로 받은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계획서도 없이 주먹치기로 사업한다고 하지만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계획 없이도 조합을 운영하면 그만이 아니겠소. 그러니 그건 문서주의자가 하는 소리니까 귀를 기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관리 위원회를 매일하지 않는다느니 조합원 총회를 매달 하지 않는다느니 또 조합원 협의회를 자주 가지지 않는다느니 하고 나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회의꾸러기 아니면 협동 조합 규정에만 매달리는 교조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조합원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신문이나 잡지들에서 회의만 하다가 일을 못해 비판을 받는 사람들을 볼때마다 내 사업 방법이 옳다는 것을 재삼 확신하군 하지오. 그리구 지난 4월 말에 집에서 싸움을 하구 화나는 김에 며엿새 훨훨 돌아다니다 왔다구

《조합을 위해서는 그런 불화쯤 참구 나와 일해야지요.》하구 시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말공부쟁이들이 하는 말이니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화가 날 때는 누구나 일이 손에 걸리지 않아 일을 못 한다는 건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구 지난 4월달에 석정동에 생일'집이 있어서 거기 갔다 오노라고 이틀 동안 조합에 좀 못 나갔다구 생일'집에 갔으면 몇잔 하구 인차 돌아와 조합 일을 보지 않구 이틀씩이나 옹군해를 지워서 그동안 조합 일이 중단됐다구 야단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건 술 먹는 사람의 실정을 모르는 참새같은 녀편네들 주둥아리에서 나온 소리니 듣지 말아야 합니다. 대중들의 의견이라 해서 덮어놓고 다 들어서는 안되니까요. 물론 내게두 결함이 있긴 있습니다. 조합에 소는 여덟 마리씩이나 되는 데도 후치가 네개 밖에 없어 두벌 김 매기도 후치질을 못하구 했기 때문에 많은 로력을 랑비한 것이라든가 조합원들은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데 생일이라구 부기원과 둘이 집에서 술을 마신 일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것 쯤은 사업하노라면 있을 수 있는 결함이 거든요.

그런데 왜 조합원들은 나를 보고 일을 잘 못한다고 하는지 아무리해도 모르겠거든요.

보면 아오

소비 협동 조합 숙천군 련맹에서 리에 배정된 상품을 인수한 리 소비 협동 조합 관리 위원은 인수한 상품들 속에서 웬 돈 뭉치를 발견했다.

〈아니 이게 웬 돈이 이속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영문을 알 수 없는 관리 위원은 군 련맹 사람에게 물었다.

그러나 군 련맹에서는 어쩐지

〈보면 아오〉

하고 마는 것이였다.

(보면 알다니?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수수께끼야)

리에서 온 사람은 아무리해도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을 리해할 수가 없었다.

〈여보 그 수수께끼는 암만해도 못 풀겠는데요.〉

그래도 역시 대주지 않고 우겨댄다.

〈보면 안다니까 그러오〉

그래 리에서 온 사람은 상품 배정 명세표와 인수한 상품을 대조해 보니 그것은 이 리 소비 협동 조합으로 배정된 상품 중에서 군 련맹 일'군이 가로챈 메리야스 샤쯔 값이다.

우리 작업 반장을 소개합니다

강남군 동산리 내구 농업 협동 조합원 들이 점심을 먹으려 집으로 들어가며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여보게, 오늘 난 희한한 걸 봤네〉

〈무엇 말이요?〉

〈글쎄 오늘 4 작업 반장이 논에 들어선걸 봤단말이야〉

〈무슨 소릴! 일년이 가두 호미 한번 들어 보지 않던 사람이 논에 들어 서?〉

〈글쎄 내 말이 거짓말인줄 알아, 논에 들어 섰을 뿐만 아니라 김까지 맸다니까 그래〉

〈모르겠소〉

〈아니 정말이야 그런데 김을 매노라고 논'바닥을 휘저은게 아니라 논에 떨어진 만년필을 찾노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 만년필을 찾노라구 논'바닥을 휘저는 바람에 그 곳에 있던 풀들이 더러 뽑혔을테니까 김 맨게 아니고 뭔가?〉

개천 검차구에서

국장 명령 제 5호에는 개천 검차구 수차선 차입은 1일 3회로 지적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그 것이 한갖 공문 같이 되어 버렸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곳 일'군들은 완성된 화차를 수차선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지 않고 10~20 시간씩 수차선에 무져 두면서 화차가 바르다고 한다. 그러면서 화차 회귀률이 낮은 리유를 구내 사령들은 이렇게 둘러댄다.

〈환차기가 돌아야지〉

〈새 다이야 실시와 관련해서 구내가 복잡해서〉

이 비판에 대하여 구내 사령들은 이렇게 대답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는 화차 회귀률 낮은 것을 회의때 토론에서는 올리군 하거든요〉

두통'거리

독자 여러분, 나는 황해북도 봉산군 봉의리에 사는 한 농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에게는 몹시 큰 두통'거리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에 로초 관리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로초로 인견사하구 인견스프지 뭔지 만든다고 하며 국가에서 로초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치지 못하게 관리하기 위해 와 있다나요.

그런데 전번에 로초 관리원은 참 좋은 사람이였습니다. 그리 경비를 심하게 하지 않아 우리가 로초를 더러 베여갈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헌데 이번에 온 관리원은 미워서 죽겠습니다. 독틈에도 용수가 있다는데 로초를 한대도 다치지 못하게 하니 소를 풀밭으로 몰고 다녀야 하게 돼서 여간만 귀찮지가 않아졌지요. 그래서 나는 그 로초 관리원을 미워하는데 (이것은 응당한 일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로초 관리원이 되려 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누가 나쁩니까? 리 운 봉

"융통성" 없는 규칙

김 문 규

《평양시내 한복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워낙 자리가 구석진 곳이라 조용하고 한적하기로 소문난 평양 제 3 려관에 우리는 려장을 풀었지요…》

신의주행 렬차 속에서 마즌편 자리에 앉은 젊은 정무원 류 계환 동무는 우선 이렇게 말 서두를 떼였다.

《려관 입구에는 커다란 종이에 눈에 잘 띄이도록 쓴 려관 규칙이 붙어 있었소. 우리는 방 배정을 받는 동안 그 규칙을 한번 쭉 내리 훑어 읽었는데 참으로 그럴듯한 규칙이더군요. 국가가 인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논, 편의시설 려관의 재산을 애호하자는 구절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려관에서는 공중도덕을 지켜야 하며 딴 손님에게 폐로될 행위들… 례를 들어 려관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떠들어대는 일은 엄격히 금지한다는 참으로 훌륭한 규칙이였소. 남 못지 않게 꼭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려관 규칙에 지적되어 있는 식사는 제시간에 반드시 해야 하며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은 오후 여섯시부터 일곱시 사이까지니 이것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조항은 잊지 않도록 두세번 되푸리해 읽었소.

우리는 그날 하루를 보내면서 려관 규칙에 지적되어 있는 저녁 시간을 잊지 않았고 모든 일을 시간과 가늠하면서 일찍암치 끝내고 저녁 식사 시간까지에 려관에 돌아 오지 않았겠소.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려관 식당문은 아직 열어 놓지 않고 있었고 식당 안에서도 식사를 채리는 기맥은 전연 보이지 않았소. 식당 앞에서 한 반 시간 가량 서성거리면서 기달려 보아도 영 무소식이기에 궁금한 나머지 접대원에게 물어 보았더니 그가 하는 말이 여덟시가 넘어야 의례히 저녁 식사가 나온다는 것이며 규칙은 일곱시로 되여 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다시 되 물었더니 규칙은 손님들이 지키라고 만든 것이니 좀 융통성 있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답이였소.

오래간만에 평양에 왔기에 극장에도 가 봐야 하겠는데 어덟시가 지나서는 극장 시간에 미치지 못할 것이 뻔한 일이기에 우리는 그야말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날 식사는 빵으로 대신 요기를 했지요.

다음날 저녁은 전날 경험이 있었기에 좀 늦게 려관에 돌아 왔지요. 식당문은 밖으로 잠겨 있는데 창문으로 들여다 보니 식당 안에서는 식사를 차리기에 한창 야단이였소. 깨끗한 식탁보 우에 김이 무럭 무럭 나는 음식들을 펼쳐 놓았는데 그 수효도 많거니와 류달리 푸짐한 것 같은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날지경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기달려도 식당문은 열리지 않지 않겠소. 좀 어색하지만 접대원에게 다시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가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 손님들 식사는 밤 아홉시가 넘어야 되겠다〉는 것이요. 그 리유는 려관 종업원들 중에서 딴 곳으로 옮겨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식당에서 우선 그들을 위한 종업원들의 송별 연회를 하고 그 연후에 손님들에게 저녁 식사를 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였소.

좀 섭섭하기는 했으나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자기 방에들 누워서 연회가 끝나기를 기달렸소.

식당안에서 맨 처음에는 조용 조용히 말'소리들이 들리더니 이윽고 그것은 술취한 소음들로 변했소. 더 지나서는 노래'소리가 터져 나오고 밤이 점점 깊어 갈 수록 노래'소리는 더욱 우렁찬 합창으로 변했지요. 이때금 취한의 고함'소리가 들려왔소. 아홉시가 지나고 열시가 넘었는데 점차 가경에 든 연회는 끝날줄 몰랐고 취한들의 고래 고래 소리 치는 노래'소리는 방에 누워서 저녁 식사를 기다리는 손님들의 귀'전을 시끄럽게 두볼겼고 더 퍼져 나가서는 조용하고 한적한 이웃 밤하늘에 어지럽게 퍼져 나갔소.

그래서 나는 그날 밤에 아주 대담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저녁 식사는 그만두고 잠들고 말았지요.》

그는 사람 좋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면서 자기 말을 끝냈다.

조 명식 그림

근시안적인 예비 탐구

—나는 너를 몰랐는데 너는 나를 알아 봤구나

최 영근 그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나 응…
—판료주의자는 저렇게 굳어서 돌이 되고 만대

길주군 주남리 9반 송 지 영 그림

미제의 손끝에서 노는 허제비

외국문 출판사 백 승렬 그림

록음실

지배인의 솜씨

여기는 안변 벽돌 공장이다. 아직도 멀었거니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6월 25일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가만 있자——상반년도 생산계획을 98%밖에 못 했으니…

달력장을 한참 뒤적거리던 지배인 동무는 오늘부터 돌격 작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현장엘 한 바퀴 돌아 본 후에 제 1 직장장과 자재부장을 불러 오게 했다. 그리하여 제 1 직장장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상반년도 계획을 달성해야지 하고 엄숙한 명령이 하달되였다. 자재부장에게는 소성 진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화목이 대량으로 필요하니 톱밥이든 벼'겨든 충분히 보장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동시에 소성공들은 식사는 보장할터인즉 소성로를 떠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렸고 상반년도 총화 통계 사업에 분망한 사무원들을 동원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30일은 일요일이다. 7월 1일에 대휴하라는 지시도 잊지 않았다.

각 부문에 걸친 명령 지시가 끝나자 지배인 동무는 소성로에 나아가 살게 되였다.

한편 자재부장은 명령이 떨어진 후 자동차를 몰고 앞뒤로 달리더니 원산 제재 공장에서 화목, 죽대기, 톱밥, 벼'겨를 실어 드리고 그도 부족하여 공장 제재소 울타리 널바자까지 훑어 지배인의 요구대로 갖추어 놓았다.

자 이제는 밤을 새워가며 구어 내면 그만이다. 사무원들은 밤 낮으로 화목을 패고 소성공들은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소성로에 불을—땠다.

이리하여 지배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6월 30일까지 백지는 구워 놓았다.

대휴키로 결정된 7월 1일은 이른 새벽부터 동원되여 요출 작업이다.

불이 뻘건데서 요출이니 손으로 벽돌'장을 쥘 수 없을 뿐더러 사람이 가마니를 쓰고 들어가 쪼각 널판자로 집어 꺼내야 하는데 판자에 벽돌이 다면 불이 붙어 타오르고 담배'불은 꺼내놓은 벽돌'장에서 부치군 했다.

이렇게 7월 1일 9시까지 상반년도 계획은 만세로 끝난 셈이나 돌격 작업으로 원자재의 랑비며 울타리 널바자며 오작품은 어찌하려는 셈인지

언제나 바쁘신 수의사

평북 태천군에서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농업 협동조합이 조직된 후부터 조합 의 가축도 개인 가축도 그 수가 급작히 늘어갔다. 그래서 도에서는 남서에다 가축 병원을 설치하고 수의사들을 배치했다.

하루는 부흥 농업 협동 조합 송아지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네번이나 왕진을 청했으나 수의사는 끝내 오시지 않았다.

다섯번째 떠나려 할때 송아지는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수의사의 말 《그거 죽은걸 어떻게 하겠소?》

또 하루는 박 응숙 조합원네 돼지가 병이 나서 병원에 달려 갔더니 분주해서 나갈 사이가 없으니 돼지를 지고 오라고 호령, 또 어떤 때는 가덕 협동 조합 리 석도 조합원의 돼지가 병에 걸려 병원으로 달려 갔더니 수의사가 계시면서도 지금은 분주하다고 그 다음 날에야 한번 나와 봐 주고는 그 다음에는 세번이나 다시 달려 갔으나 더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그러고 보니 이곳 병원 김 정순 수의사를 비롯한 선생님들은 위신을 차리고 격식을 찾는 것이나 아닌지, 사람이 어찌 위신도 없이 짐승을 찾아 가서 병을 고쳐 줄 수 있으랴, 짐승이 사람을 찾아와 탈을 보아 달라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시는 거나 아니신지?

애 노름에 어른 싸움

앞마당에서 왁짜하는 소리가 난다.

웬 일일까, 무슨 일일까? 아빠트의 2층 3층에서는 모두 창문을 열고 내다본다.

시어머니의 말

아들—어머니 이젠 처가 수고를 더러 드릴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구경도 다녀야지

—아직 손에 익지 않을테니 돌봐 줘야지

어머니—얘야! 네가 장가든 후 내가 더 일이 많아진 것 같구나

원 광수 그림

어른들과 아이들이 마당에 모여 서서 떠들고 있는데 아이들의 싸움인지 어른들의 싸움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싸움이 일어난 것만은 확실하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사유를 알아 보았더니 역시 아이들의 싸움인지 어른들의 싸움인지 모를 싸움이였다. '장난'군 꼬마들이 한창 장난에 취해 뛰놀다가 진호가 그만 옆에 있던 대성이를 밀아 넘겨서 코피를 터뜨려 놓고 말았다. 그러자 달려온 대성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코피를 닦아 주려고 하지 않고 성낸 주먹이 진호를 쥐여 박아 놓았다.

진호는 자신으로서도 뜻밖에 일로 친한 동무 대성이의 코피를 내게 해 놓고는 어쩔 줄 몰라 하던 판에 한번 단단히 얻어 맞고 나니 정신이 어찔해서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때마침 꼬마들의 련락을 받고 대성이의 코피를 씻어 주려고 달려 오던 진호 어머니는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래서 애들 노름에 끼인다느니 남의 애의 코피를 터뜨려 놓고도 큰 소리라느니 하며 오는 말보다는 가는 말이 더 곱지 않게 되고 말에 말을 보태고 목청을 돋구고 하여 이 판이 벌어진 것이다.

아이들 싸움에 그쳤더라면 그 저녁쯤에는 진호와 대성이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시 유쾌히 놀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의 싸움으로 커졌던 관계로 두 꼬마는 한동안 서로 놀지도 못하게 되였고 대성이는 애들끼리 놀다가도 가끔 울음을 터뜨려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군 하는 버릇이 날로 심해갔다. 조그만 일에도 어머니더러 역성을 해 달라고 하는 버릇이 점점 더 심해진 것이다.

그렇게 자란다면

성숙이네 집 뜰악에는 분홍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초롱같이 조롱 조롱 달린 꽃이 유난히 눈에 띠이게 아름답게 피였다.

그래서 지나는 사람마다 의례 그 꽃 이름이 무엇이며 그 종자를 어디서 구했느냐고 묻는 것이였다. 그럴 때 마다 이집 주인은 자랑삼아 조선에는 없는 꽃이라고 어느 먼 외국에서 가져 온 것이라고 하면서 꽃 이름 조차 잘 알 수 없다고 대답을 하군 한다.

그럴적마다 열살짜리 성숙이는 우쭐해진다. 보는 사람마다 곱다고 칭찬하고 그때마다 부모가 자랑삼아 이야기하군 하는게 모두 자기 《공로》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인즉 이 꽃나무들을 아동 공원 꽃밭에서 성숙이가 남 몰래 뽑아다가 자기 집 뜰악에다가 심었던 것이다.

성숙이의 이런 《공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그의 부모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겨야 할 공원의 꽃밭을 망쳐 놓은 것은 사회 도덕상으로 보아도 죄악이려니와 성숙이가 계속 이렇게 자란다며는 꽃밭보다 더 화려할 앞날의 우리 사회에서 살 자격을 잃게 되지 않을까?

김 상 애

류행병에 걸린다며는?

원 광수 그림

편집 위원 장 진팡, 유 항림, 김 선락, 박 기성, 정 준기
신 홍순, 백 인균, 송 용남, 리 수근,

발행소 활 살 사 인쇄 1957. 8. 10 7—40579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7. 8. 15 값(50원)

8 ПЭР
УЛ.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
22 1.12 Н8034

해방 열두 돐을 맞는

8034 ХРАЛЬСАЛЬ

환호의 소리

분노의 소리

홍 종호 그림

МИНИСТЕРСТВО СВЯЗИ
РСФСР

Союзпечать

ИЗВЕЩЕНИЕ

Московская Городская Дирекция „Союзпечать" ставит Вас в известность, что в Москве начата подписка на 1958 год

НА ГАЗЕТЫ И ЖУРНАЛЫ СТРАН НАРОДНОЙ ДЕМОКРАТИИ.

Подписка принимается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ями печати на заводах, стройках, в учреждениях, научных институтах и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Там же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аталогом.

ПОСЛЕДНИЙ ДЕНЬ ПРИЕМА ПОДПИСКИ — 5 ОКТЯБРЯ 1957 года.

После 1 января 1958 года будет вновь возобновлена подписка с последующих сроков, а именно:

на газеты — поквартально, т. е. с апреля, июля и октября;

на журналы — только на второе полугодие 1958 года.

Московская Городская Дирекция „Союзпечать"

Л от 24/VIII—57 г. Тип. «Московская правда». Зак. 3632